주간 증시 브리핑

2026.5.11(월)

유진투자증권
리서치센터

Executive Summary

- **[증시요약]** 대망의 코스피 7천 시대가 열렸음. 반도체 실적과 목표가 상향 속에 코스피는 5/8일 장중 7,511pt까지 급등함 (7,498p, 주간 +899p, +13.6%). 반면 대형주 쏠림 속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됨(1,208p, 주간 +1.3%). 한국 전체 시가총액은 4.6조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7위로 올라섰음(8위 캐나다 4.5조 달러).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조 달러에 도달했음.

- **[해외증시]** 美 증시는 인텔 등 기술주 실적 호조와 美 4월 고용 호조로 최고치 경신을 지속 (S&P500 +2.3%, 나스닥 +4.5%). 美 4월 신규 일자리 수는 11.5만 건 증가해 예상(5.5만 건)을 크게 상회함. 닛케이도 최고치를 경신하며, 6.2만선에 도달 (주간 +5.4%). 中 증시도 기업실적 기대 속에 상승 (상해 +1.6%, 항셍 +2.4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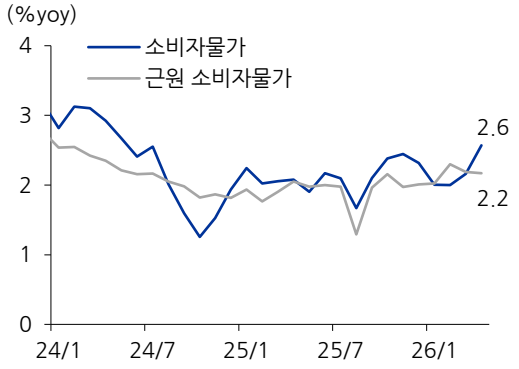
- **[시장전망]**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속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전망. 2025년 한해 75.6% 올랐던 코스피는 올해 +77.9% 추가로 급등함. 그러나 예금에서 투자로의 자금 이동이 멈출 만한 계기를 찾기 어려움. 대형 반도체에 대한 쏠림은 경계 요인이나, 주식시장 상승 추세는 유효함.

- **[주요일정]**
  - ① 美 4월 소비자물가지수 (5/12일)
  - ② 韓 4월 생산자물가지수 (5/13일)
  - ③ 美-中 정상회담 (5/14~15일)
  - ④ 中 4월 소비자/생산자물가지수 (5/11일)
  - ⑤ 美 소매판매 (5/14일)
  - ⑥ 韓 5월 1-10일 수출 (5/11일)
  - ⑦ 美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만료 (5/15일)
  - ⑧ 中 알리바바, 美 시스코

구분		5/8	1W	1M
KOSPI	↑	7,498	13.6%	27.7%
S&P500	↑	7,399	2.3%	9.1%
DOW	↑	49,609	0.2%	3.5%
닛케이225	↑	62,714	5.4%	11.4%
상해종합	↑	4,180	1.6%	4.6%
원/달러(원)	↓	1,471.7	-0.8%	0.1%
엔/달러(엔)	↓	156.7	-1.6%	-1.0%
국고채3년(%)	↓	3.569	3.595	3.315
국고채10년(%)	↓	3.909	3.923	3.628
미국채10년(%)	↓	4.356	4.372	4.295
WTI(달러/배럴)	↓	95.4	-6.4%	1.1%
한5-yr CDS(bp)	↓	25.7	-3.37	-4.0

CHART of the week

韓 소비자물가지수 추이



1 韓 KOSPI 대망의 7,000pt 시대 (5/6일)

반도체 실적 영향, 그러나 대형주 쏠림은 유의

- 韓 코스피는 美-이란 전쟁 후 3/31일 5,050pt까지 하락했으나, 4/15일 6,000pt를 회복한지 20여일 만에 종가 기준 7,400pt를 상회. 닷컴버블 이후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임 (26년 YTD +78% 상승).
- 5월 초 올해 반도체와 코스피 영업이익은 각각 580조원, 867조원으로 전쟁 후 더 빠르게 상향됨. 올해와 내년 실적 기준 적정 코스피는 8천 중후반대~9,800pt로 추가 상향 조정이 가능함.
- 그러나 반도체 제외 업종은 코스피 대비 부진함.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은 코스피 전체의 60%후반까지 상승하며 쏠림이 심화됨.
- 5월 들어 14% 오른데 따른 단기 부담은 있지만 당장 반전될 요인도 찾기 어려워 보임.

2 韓 4월 CPI +2.6%yoy 상승(5/6일)

유가 영향, 금리 인상 경계 요인

- 韓 4월 CPI는 +2.6%yoy 상승하며 전월(+2.2%) 대비 상승폭이 확대됨. 전월 대비 +0.5% 상승해 유가 영향이 크게 나타남.
- 핵심 요인은 단연 유가. 석유류 가격(+21.9%)은 급등하며 물가의 0.84%p를 끌어올림.
- 반면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-0.5% 하락하며 물가 상승폭을 일부 상쇄. 채소류 가격은 -12.6% 하락함.
- 정부 유류세 및 최고가격제 정책으로 근원 물가는 +2.2%로 안정적임. 그러나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추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.
- 인플레 압력이 확산될 경우 한은은 하반기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.

3 韓 은행예금 유출, 증시 자금 증가

올해 1~4월 주식형 펀드 108조원 증가

- 은행 예금은 감소하고, 주식형 자금이 급증함.
- 올해 1~4월 동안 은행 실세 총예금은 28조원 증가에 그침. 반면 동 기간 주식형 펀드로 +108조원, 예탁금은 +36.9조원 증가함(2025년 주식형 펀드 +83조원, 예탁금 +34조원 증가).
- 주식형 펀드는 1월 37조원, 2월 34조원 유입되었다가, 이란 전쟁으로 3월 -19조원 유출됨. 그러나 4월 +55.7조원이 빠르게 유입됨.
-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도 35.4조원 (5/6일)으로 사상 최고치이며, 올해 32% 늘어남. 그러나 올해 코스피 78% 상승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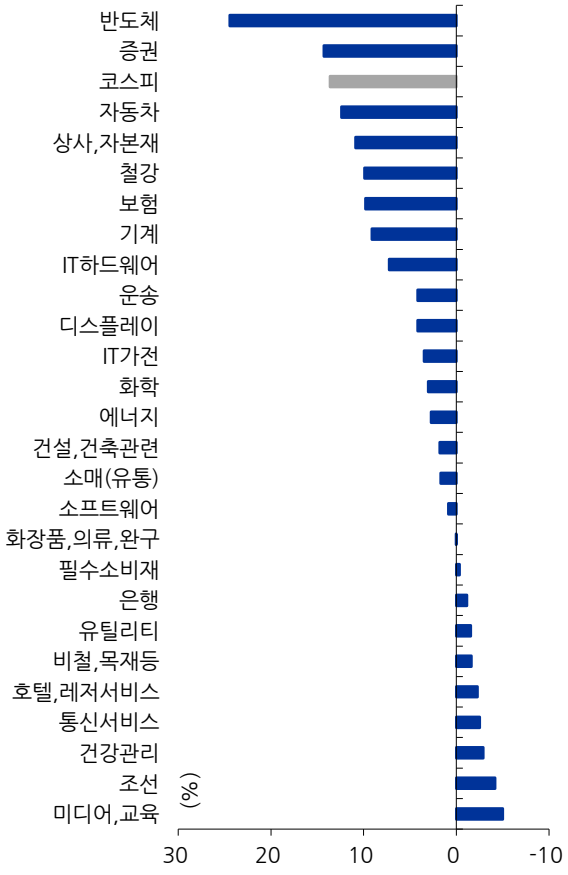
4 韓 채권시장 동향(5/4~8일)

종전 기대감에 강세 마감

- 국고채 3년물 금리 3.569%(-2.6bp), 10년물 금리 3.909%(-1.4bp)마감.
- 주초 국고 30년 입찰이 다소 부진했지만 마이란 종전 기대감 부상하며 금리 하락. 양국 간 핵협상 및 종전 등을 담은 MOU 체결이 근접했다는 소식이 알려짐.
- 이에 원/달러 환율도 1,450원대로 낮아지면서 통화정책 부담감 일부 축소됐고,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도 지속되며 강세 견인.

주요 이슈 / 경제 지표 전망 / 주요 일정

주간 업종별 수익률(5/8 기준)



주요 경제지표 예상(5/11 ~ 5/15)

美 4월 CPI (5/12일) → 관세와 유가 충격의 전가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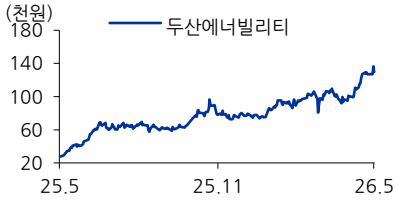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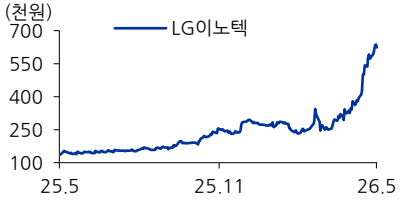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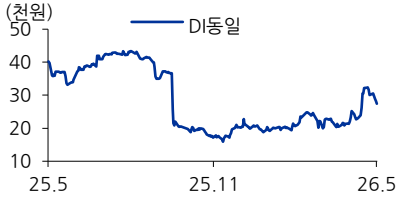
- 美 3월 CPI는 +3.3%yoy 증가하며 25년 9월 이후 다시 3%대로 상승함
- 4월 CPI는 +3.8%로 전월 대비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예상됨
- 물가 레벨보다 관세와 유가 충격에 따른 소비자 가격 전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
-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. 가전, 의류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 전가는 재화(Goods) 가격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중동 전쟁과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연준은 고용 보다 물가 안정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음

韓 5월 1-10일 수출(5/11일) → 반도체 수출 증가율에 주목

- 韓 4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로 +48%yoy 증가하며 2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. 일평균 수출도 +48% 증가하며 강한 수출 모멘텀이 지속
- 5월 1-10일 수출은 반도체 중심의 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 전월 1-10일 수출은 +36.7%yoy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
- 美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Capex 확대는 반도체 및 컴퓨터 중심의 IT수출 호조를 지지하는 요인
- 반면 자동차 및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은 美 관세 정책으로 부진한 흐름이 전망
- AI 중심의 '선택적 호황'으로 품목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국면으로 판단. 수출 증가율보다 반도체 수출 둔화 여부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

	주요경제지표발표	매크로 / 시장 이벤트
5/11 (월)	▪ 美 4월 기존주택매매 (P: -3.6%mom) ▪ **中 4월 소비자물가지수** (C: +0.8%yoy, P: +1.0%yoy) ▪ **中 4월 생산자물가지수** (C: +1.7%yoy, P: +0.5%yoy) ▪ 韓 5월1-10일 수출 (P: 36.7%yoy)	▪ [실적발표] 韓 롯데쇼핑, S-Oil 美 콘스텔레이션 에너지, 써클인터넷
5/12 (화)	▪ **美 4월 소비자물가지수** (C: +3.8%yoy, P: +3.3%yoy) ▪ **美 4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** (C: +2.7%yoy, P: +2.6%yoy) ▪ 美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(P: 95.8pt)	▪ MSCI 반기 리뷰 ▪ [실적발표] 韓 NHN, CJ제일제당
5/13 (수)	▪ **美 4월 생산자물가지수** (P: +4.0%yoy) ▪ 韓 4월 실업률 (P: 2.7%)	▪ OPEC 월간 원유시장보고서 ▪ [실적발표] 韓 HD현대, SK이노베이션 [실적발표] 韓 삼성화재, 한국앤컴퍼니 美 시스코, 中 알리바바
5/14 (목)	▪ **美 4월 소매판매** (C: +0.4%mom, P: +1.7%mom)	▪ **美-中 정상회담(~15일)** ▪ 韓 옵션만기일 ▪ [실적발표] 韓 삼성화재, 한국앤컴퍼니 美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
5/15 (금)	▪ 美 4월 산업생산 (C: +0.2%mom, P: -0.5%mom) ▪ 日 4월 생산자물가지수 (P: +2.6%yoy)	▪ **美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만료** ▪ 美 옵션만기일 ▪ [실적발표] 韓 코오롱인더, 한국콜마

추천 종목

섹터/산업	종목/코드	편입가 (원) 편입 날짜	수익률	최근 1년간 차트	주요 실적 예상 & Valuation	투자 포인트
IT/전기전자	대덕전자 (353200)	114,400 (5월 4일)	+7.7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892.1 / 1,049.6 / 1,510.6 영업이익 11.3 / 47.0 / 233.0 순이익 23.8 / 45.6 / 193.4 PER (배) 33.6 / 136.1 / 32.2	▪ 하반기 서버급 대면적 FC-BGA 기판, 내년 2분기 Ai5 등 신제품 모멘텀 전까지 컨트롤러 제품이 가동률 개선 견인 전망 ▪ 1) MLB 내 SpaceX향 항공우주 MLB 물량의 증가, 2) MLB 내 AMD Helios향 출하 증가, 3) 메모리 PKG 증설(컨센 미반영)으로 인해 27년 OP 상향 기대
IT/전기전자	파미셀 (005690)	20,250 (5월 4일)	-4.6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64.9 / 111.2 / 162.8 영업이익 4.7 / 35.3 / 59.1 순이익 6.3 / 35.7 / 57.7 PER (배) 78.5 / 32.1 / 19.9	▪ 이원화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전자BG향 꾸준한 저유전율 전자소재 수요에 힘입어 1분기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 예상 ▪ 내년 3공장 증설 반영 시 27년 연간 영업이익 933억원 예상. 고부가 CCL 제조에 필수재료 제조업체임을 감안한다면 현 시총 수준은 저평가
에너지/인프라	두산에너빌리티 (034020)	111,000 (4월 20일)	+16.8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16,233.1 / 16,968.5 / 18,071.1 영업이익 1,017.6 / 887.8 / 1,122.8 순이익 394.7 / 373.7 / 500.2 PER (배) 101.0 / 494.9 / 294.0	▪ '26년부터 글로벌 대형원전 발주 본격화될 전망, SMR 파운드리로써 '28년 캐파 20기 달성하며 지속 성장 전망 ▪ GEV, 지멘스, 미쓰비시 가스터빈 수주잔고가 5년 이상 적체되어 동사 수혜 기대. '27년 이후 서비스 매출 비중 확대로 믹스 개선 효과까지 이어질 전망
IT/전기전자	LG이노텍 (011070)	409,500 (4월 20일)	+52.4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44.5 / 21,912.4 / 24,176.8 영업이익 (1.5) / 711.0 / 1,077.8 순이익 (7.6) / 470.2 / 751.9 PER (배) - / 32.1 / 20.1	▪ 2026년 FC BGA 가동률 50% 미만 수준. AI 가속기와 CPU 기판 병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쟁 업체들 대비 여유있는 가동률로 인해 신규 수주 가능성 높다고 판단 ▪ 내년부터 FC BGA 제품 및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빠른 가동률 개선을 기대
그린산업/ESG	DI동일 (001530)	21,400 (4월 6일)	+28.3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651.7 / 608.9 / 699.2 영업이익 7.8 / (1.0) / 12.0 순이익 2.5 / (9.7) / 11.5 PER (배) 766.3 / - / 50.5	▪ 알루미늄박 생산라인은 내년 4분기 추가 3개 라인 완공 예정. 대부분 LFP 배터리용 코팅박으로 생산될 것으로 추정 ▪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향후 동사의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규모